

강남의 밤은 한 갈래가 아니다. 테이블 보들이 번쩍이는 메인룸이 있고, 대화가 가능한 라운지도 있다. 층을 달리하면 하우스가 흐르다가, 옆 골목에서는 붐뱀 베이스가 지면을 때린다. 같은 금요일 밤이라도 시간대, 동선, 목적이 다르면 음악의 답도 달라진다. 이 글은 강남에서 음악으로 공간을 설계하고 운영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장소별로 어떤 결이 작동하는지, 실제로 어떤 곡과 BPM, 사운드 연출이 어울리는지까지 촘촘히 짚어본 기록이다. 강남유흥의 간판으로 알려진 메가클럽이든, 검색에서 흔히 보이는 강남업소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다양한 유흥 지대든, 음악은 공간의 공기와 소비의 속도를 좌우한다. 짬오, 강남짬오 같은 속어가 회자되는 현실도 있지만, 이 글에서 다루는 건 오직 사운드와 현장의 반응이다.

밤의 호흡, 시간과 BPM의 상관관계

강남의 주말은 보통 네 개의 시간창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8시에서 10시 반 사이의 프리 드링크 타임, 두 번째는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의 피크 인입, 세 번째는 1시에서 3시를 지나는 메인 피크, 마지막은 새벽 3시 이후의 클로징 테일이다. 이 시간축은 장르의 선택뿐 아니라 곡의 길이, 키 체인지 폭, 드롭의 강도까지 결정한다. 같은 곡도 언제 트느냐에 따라 기능이 달라진다. 피크 타임에 던지는 하드 트랩이 1시 이전에는 오히려 소음을 만든다. 반대로 너무 느긋한 소울을 1시 반에 걸면 테이블 매출이 식는다. 경험상, 한 시간에 18곡에서 22곡, 곡당 2분 30초 내외의 체류가 강남의 메인룸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반응을 얻었다. 라운지는 1시간에 12곡, 곡당 4분 이상이 안정적이다.

다음은 현장에서 써 본 단순화된 가이드라인이다.

- 20:00 - 22:30 프리 드링크 94 - 108 BPM, 멜로딕 딥하우스나 네오 소울. 킥은 단단하되 하이햇을 억제해 대화 볼륨을 지킨다.
- 22:30 - 01:00 인입 105 - 120 BPM, 힙합과 라틴, UK 드릴의 스윙. 드롭은 짧고 후렴 인지도가 높은 곡을 3연속으로 연결해 체류를 고정한다.
- 01:00 - 03:00 피크 125 - 130 BPM, 트랩-EDM 크로스오버와 보컬 하우스. 반주 브레이크를 16마디 이하로 관리 흐름을 끊지 않는다.
- 03:00 - 05:00 테일 100 - 110 BPM, 아프로비츠와 RnB 믹스. 에너지 레벨을 반 박자 낮추되 키를 메이저로 유지해 이탈을 부드럽게 만든다.

이건 절대 법칙이 아니다. 다만 첫 잔의 온도와 마지막 택시 잡는 속도를 음악이 함께 만든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라운지 바의 임계값, 목소리가 승리하는 공간

라운지는 밤의 입구다. 강남역 사거리와 역삼 골목 사이에 포진한 라운지 바에서는 음악이 주인공이 되면 곤란하다. 여기서의 역할은 대화를 지지하고, 사진 촬영에 분위기를 깔아주고, 가벼운 스텝을 허락하는 정도다. 96 - 108 BPM의 로파이 하우스, Sade와 같은 클래식 소울의 리믹스, FKJ나 Tom Misch 계열의 라이브 느낌이 있는 곡들이 무난하다. 빈도를 너무 높은 킥이 쉴 새 없이 때리면 글라스에서 미세한 공진이 생기고, 손님은 무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높인다. 30분만 지나면 인지가 피로해진다.

공간음향 측면에서 유의할 점은 테이블 간격과 흡음의 정도다. 목재 테이블과 패브릭 커튼이 많은 라운지에서는 2 kHz 이상 영역을 살짝 올려도 튀지 않는다. 반대로 노출 콘크리트와 유리면이 많은 곳은 4 kHz를 2 dB 정도 눌러줘야 악센트가 쓰지 않는다. 서브우퍼는 60 - 80 Hz를 3 dB 정도 리미팅하면 대화가 무너지지 않는다.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라운지에서 가장 사랑받는 것은 익숙한 멜로디의 낮은 자극 리믹스다. 예컨대 Billie Eilish의 Ocean Eyes를 100 BPM으로 리에디트한 버전, 키가 루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국 발라드의 라운지 리믹스가 사진과 잘 어울린다.

힙합 바, 후렴의 권력이 지배하는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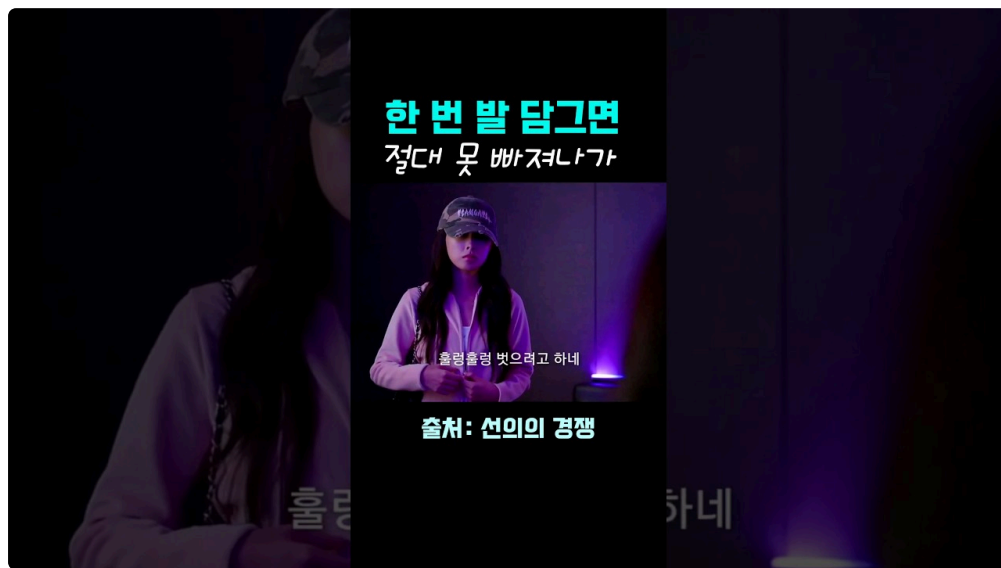
강남유희의 옆줄에는 힙합 바가 있다. 천장이 낮고 테이블 동선이 뻑뻑한 공간에서 힙합은 단순히 장르가 아니라 시그널이다. 이곳의 키워드는 인지도와 후렴의 집단 구호다. 2010년대 중반 이후 K-힙합이 쌓아 올린 캐시카우 후렴, 예를 들어 Higher, 인증샷이 물리는 순간에 맞춰 터뜨릴 수 있는 곡들이 안전하다. 트랩의 140 BPM은 반 박자 해프타임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 체감은 70 BPM이다. 군중이 몸을 흔드는 최고 속도는 75 - 95 BPM 사이에서 가장 자연스럽다.

해외에서 수입된 사운드도 강남에서는 번역이 필요하다. 드릴과 저지 클럽 사운드는 저역이 과하면 룸 전체에 저음 구름을 만든다. 작은 룸에서는 50 Hz 아래를 하이컷하고, 100 Hz를 살짝 더해 킥의 존재감을 대체하는 게 낫다. MC가 있는 경우, 마이크 컴프레서를 3.1:1로 두고 스로틀을 빠르게 설정하면 테이블 안내 멘트가 음압을 뚫고 전달된다. 힙합 바의 셋은 보통 10 - 12곡 단위의 미니 아크로 구성한다. 인지도 높은 후렴 3곡, 오래된 명곡 1곡, 의외성 있는 RnB 1곡, 로컬 히트 2곡, 이렇게 묶으면 장르가 같지라도 군중의 기억을 따라간다.

현장 일화 하나. 목요일 자정 직후, 테이블이 70퍼센트 찼는데 탑라인 싱어의 미발매 프리뷰를 길게 틀었다가 바가 일시적으로 고요해졌다. 반응을 끌어올리기 위해 바로 뒤에 걸어야 할 카드는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후렴이었다. 그때 선택한 건 2000년대 초반 K-pop 보이그룹의 히트곡 리믹스. 30초 만에 모든 테이블의 시선이 중앙으로 돌아왔다. 힙합 바에서 실험은 가능하지만, 언제나 돌아갈 노선표가 필요하다.

메가클럽의 메인룸, 장르보다 구조가 먼저

메인룸에서 중요한 건 장르 취향보다 세트의 구조다. 1시에서 2시 반 사이, 보틀 쇼가 겹치고 인스타 라이브가 동시다발로 켜지는 시간에는 분석할 겨를이 없다. 여기서는 128 BPM 전후의 하우스와 EDM이 기본 프레임を提供한다. 강남 메가클럽의 스피커 어레이는 대개 30 Hz까지 플랫하게 내려간다. 하지만 체감 에너지는 60 - 90 Hz에서 결정된다. 이 구간이 검처럼 단단해야 드롭의 질량이 느껴진다. 트랩으로 내리거나 라틴으로 전환할 때는 하이패스 25 Hz를 과감히 올려 룸 전체의 미세 흔들림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 병목구간, 즉 바 앞 2미터 라인이 유지된다.



메가클럽에서 먹히는 보컬 하우스는 후렴의 첫 4마디가 명확해야 한다. 후렴 전 8마디를 기다려야 하는 곡은 현장 효용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페스티벌에서 대서사로 빛나는 곡들도 강남에서는 후렴 전개가 느리면 에너지가 분산된다. 키는 보통 G 또는 A 메이저가 안전지대다. 야간 조명과 LED 월의 색온도, 테이블 스파클러의 빛과도 궁합이 좋다. 3곡마다 반음 혹은 온음 상승을 걸어 올리되, 각 아크의 끝에는 절대적으로 익숙한 샤프트 포인트를 둔다. 40분 아크의 마지막을 한국어 후렴이 받치면, 그 다음 20분은 영어권 히트로도 군중의 에너지가 이탈하지 않는다.

하우스 룸, 그루브로 설득하는 법

대형 클럽의 세컨드 룸이나 독립적인 하우스 바에서는 서사와 텍스처가 중요하다. Amapiano의 롤링 로우엔드가 강남에서도 작동하기 시작했고, Afro house의 복합 리듬이 의외로 테이블 체류 시간을 늘린다. 122 - 126 BPM에서

퍼커션이 살아 있는 곡으로 톤을 정하고, 보컬은 중반부에만 넣는다. 노랫말보다 리듬이 주도하는 공간에서 사람들은 더 오래 서성인다. 하우스 룸은 스텝의 각도를 바꾸는 스네어 필과 클럽의 공간감이 핵심이다. 리버브 테일을 길게 쓰면 룸이 넓어 보이는 착시가 생긴다. 천장고가 낮다면 리버브의 프리딜레이를 10 - 15 ms로 짧게 두고, 프리퀀시 컨서스 리버브를 적용해 500 [강남점오](#) Hz 부근의 탁함을 피한다.

경험적으로, 하우스 룸에서 K-pop 보컬의 리에디트는 20분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과하면 리듬의 결이 깨진다. 반대로 외국인 손님 비율이 높은 날에는 클래식 하우스 보컬 샘플링, 예컨대 CeCe Peniston 계열의 톤을 갖춘 현대 리믹스가 다리를 놓는다. 강남이라는 로컬리티는 결국 혼합의 기술이다.

루프탑과 테라스, 바람과 볼륨의 타협

옥외 공간에서는 바람이 사운드를 잡아먹는다. 특히 2 kHz 이상의 디테일이 쉽게 흩어진다. 루프탑에서는 보컬의 컨투어를 또렷이 하되 킥의 펀치를 지나치게 밀어붙이지 않는다. 110 - 120 BPM의 누 디스코와 프렌치 하우스가 잘 어울린다. Daft Punk 계열의 필터 하우스나 Purple Disco Machine 풍의 베이스가 마시던 칵테일의 온도와 잘 맞는다. 마이크로 파티를 운영한다면 30분 간격으로 볼륨을 1 dB씩 살짝 올렸다 내리는 브리딩을 주면 체감 활력이 생긴다.

테라스는 대화가 중심이라 그루브의 밀도를 낮춘다. 퍼커션을 팝콘처럼 흩뿌리면 산만해진다. 한 곡 안에서 사건이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피곤해한다. 루프탑에서의 플레이리스트는 보컬이 친절하고 후렴이 따뜻해야 한다. 한국 시티팝의 리메이크가 여름철에는 거의 만능열쇠처럼 작동한다.

애프터 아워, 낮아지는 불빛의 온도

새벽 3시 이후는 강남의 또 다른 얼굴이다. 집에 가려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종료를 미루는 테이블이 생긴다.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과장하지 않는 태도다. 100 - 110 BPM의 아프로비츠와 미드템포 RnB, 다크하지 않은 UK 개러지의 파생이 좋다. 베이스가 너무 날카로우면 남은 에너지를 모두 잡아먹는다. 대신 그루브를 유지하고, 키는 메이저나 도리안으로 관리한다. 마감 직전 15분은 소리보다 빛의 볼륨을 낮추는 시간이기도 하다. 조명의 색온도를 3500K 이하로 내리면 사람들의 동작이 느려지고, 이별의 제스처가 부드러워진다. 음악은 그 흐름을 덮지 말고 따라가야 한다.

사운드 시스템과 룸튜닝, 매출로 이어지는 선택

음악 지형을 논하며 장비를 빼면 반쪽이다. 강남의 다층 구조에서는 라인 어레이의 각도와 서브의 카디오이드 설정이 공간 경험을 좌우한다. 서브우퍼를 카디오이드로 세팅하면 무대 뒤로 빠지는 저역을 줄이고, 테이블 존의 명료도를 살릴 수 있다. 보틀 쇼 타임에는 80 Hz를 2 dB 정도 업, 250 Hz를 살짝 눌러 보컬이 흐리지 않게 한다. DJ 부스의 모니터는 클럽 사운드보다 2 dB 낮춰야 믹스 판단이 정확해진다. 과열된 모니터는 믹스의 로우엔드를 억지로 줄이게 만든다.

룸 튜닝은 영업 전 두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어야 한다. 스위프 톤으로 63 Hz, 80 Hz, 100 Hz, 125 Hz, 160 Hz를 체크하고, 레스폰스가 튀는 구간을 컷한다. 현장에서 많이 겪는 문제는 125 Hz의 공진이다. 이 구간이 과하면 킥이 붕붕거리며 테이블 위 유리가 미세하게 떨린다. 손님은 무의식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 이 작은 차이가 2잔 주문을 1잔으로 줄인다.

로컬 취향, 글로벌 트렌드와의 접점

강남은 글로벌 사운드를 빨리 받아들이지만, 로컬 문법으로 다시 쓰는 속도도 빠르다. 힙합에서는 한국어 후렴의 리드미컬한 샤프트가 여전히 강력하고, 라틴과 아프로비츠는 콜 앤드 리스폰스가 선명한 트랙이 호응을 만든다. 하우스에서는 트랜스성 멜로디보다 펑키 베이스가 더 안전하다. K-pop 리믹스는 칼날처럼 써야 한다. 남발하면 장르의 결이 깨지고, 너무 아끼면 기회의 창을 놓친다.

그 사이사이에 과거의 히트가 다리를 놓는다. 2000년대 초중반의 댄스 히트, 예컨대 라틴풍 스트링이 살아 있는 곡들이 라틴과 K-pop의 사이를 자연스럽게 묶는다. 외국인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날에는 영어권 보컬 두 곡을 연달아 두고, 세 번째에 한국어 후렴을 넣어 에너지를 묶는다. 체감상, 이 3스텝 구조는 이탈률을 5 - 8퍼센트 낮춘다.

플레이리스트는 악보가 아니라 지도

플레이리스트를 곡 목록으로만 보면 현상이 흔들린다. 목적과 동선, 조명, 테이블 서비스 타이밍, 마케터의 푸시 알림 시간이 모두 얽힌 지도여야 한다. 강남업소로 뭉뚱그려 부르기에는 스펙트럼이 넓다. 강남유흥의 하위 장르는 공간 구성과 파티 브랜딩, 심지어 클라이언트의 드레스 코드까지 다르다. 라운지에서 건조한 딥하우스를 지나치게 오래 틀면 테이블 전환이 늦는다. 메인룸에서 힙합을 두 곡 이상 연속으로 틀었을 때 인입 줄이 멈추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데이터와 경험의 결합이 필요하다.

한 가지 실무 팁. SNS 광고가 도달 피크를 찍는 22시 30분 전후에는 인지도 높은 후렴을 10분 간격으로 박는다. 알림을 보고 들어온 이들이 문을 연 순간에, 그 후렴이 들려야 한다. 그리고 테이블 입장과 동선 안내를 위해 MC 큐를 선명하게 열어 둔다. 플레이리스트가 홍보 캘린더와 분리되면 낭비가 생긴다.

DJ의 심리, 운영의 손발

좋은 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반복할 수 있어야 한다. DJ의 심리 상태는 셋의 편차를 만든다. 장비에서 큐 버튼의 민감도, 크로스페이더 커브, 이어폰의 아이솔레이션까지 컨디션에 영향을 준다. 운영팀은 이를 표준화해 심리적 체력을 나누어야 한다. 45분 아크, 15분 브리더, 15분 게스트 인터랙션 같은 리듬을 팀이 공유하면 당일 변수가 줄어든다.

그리고 테이블 서비스의 타이밍은 음악의 박자와 맞아야 한다. 스파클러가 들어오는 순간에 보컬의 모음이 길게 늘어지면 박수 타이밍이 어긋난다. 반대로 드롭 직전 2마디에 입장하면 감탄사가 터진다. 이걸 작은 차이 같지만 영상 기록의 퀄리티를 바꾼다. 요즘은 영상이 광고다. 강남점오 같은 키워드로 우연히 유입된 사람들이라도, 영상의 에너지가 문턱을 넘게 만든다.

안전과 볼륨, 규제가 만드는 프레임

강남은 민원과 점검의 리듬을 갖고 있다. 건물마다 층간 구조가 달라서, 같은 볼륨이라도 하부층에 전달되는 저역이 다르다. 사전 측정으로 31.5 Hz, 63 Hz, 125 Hz의 누출을 수치화하고, 영업 중에는 63 Hz를 기준으로 모니터링하면 민원을 줄일 수 있다. 소음 기준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운영자는 법적 기준과 실내 경험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 한다. 장비로는 매트릭스 프로세서에서 시간대별 리미터 프리셋을 두고, 피크 타임과 테일 타임을 다르게 관리한다. 안전은 음악의 적이 아니다. 좋은 제약은 좋은 창의력을 만든다.

공간별 플레이리스트, 실제 운용 예시

현장에서 쌓은 로그를 바탕으로, 공간과 상황이 분명한 샘플을 그려본다. 특정 아티스트와 곡명을 무리하게 적지 않고 결을 설명한다. 운영자는 여기에 로컬 히트와 그날의 공기를 얹으면 된다.

라운지 바 프리 타임 20:00 - 22:00. 100 BPM 내외의 네오 소울 리믹스, 색소폰이나 로즈 피아노가 주인공인 곡을 묶는다. FKJ풍 기틀의 연주곡, 한국 발라드 후렴을 잔잔히 필터링한 에디트, 프렌치 하우스의 서정적 베이스가 연결된다. 여기에 30분마다 사진이 잘 나오는 보컬 하이라이트를 배치하면 체류가 늘어난다.

힙합 바 인입 22:30 - 00:00. 인지도 높은 후렴 3곡으로 포문을 연 뒤, 로컬 래퍼의 콜라보 히트, 90년대 힙합 클래식 리메이크를 1곡 넣는다. 그 뒤 한국어 가사 RnB로 부드럽게 내렸다가 드릴 베이스를 살짝 짚고 돌아오면 군중이 따라온다. BPM은 96 - 104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게 안정적.

메가클럽 피크 01:00 - 02:30. 126 - 130 BPM의 빅룸 하우스, 보컬이 뚜렷한 프로그레시브, 트랩-EDM 하이브리드 드롭을 교차 배치한다. 3곡 아크 끝마다 한국어 후렴을 탑재한 리믹스를 1곡씩. 드롭의 길이는 8마디 안에 끝내고, 브레이크다운은 조명을 활용해 드라마를 만든다.

하우스 룸 23:00 - 01:30. 딥하우스 시작, 아프로 하우스로 체력 상승, Amapiano로 허리를 낮췄다가 누 디스코로 미소를 올린다. 퍼커션이 적절히 살아 있는 곡을 골라 보컬은 절제한다. 30분에 한 번, 클래식 하우스 보컬 샘플이 들어간 곡으로 환기한다.

애프터 03:00 - 04:30. 아프로비츠의 미드템포, 한국어 RnB의 그루브, 라틴팝의 느린 측면을 잇는다. 볼륨은 1 dB 낮추고 베이스의 어택을 둥글게 만든다. 빛을 어둡게, 키는 밝게. 각자의 귀가를 배웅하는 음악.

장르 간 접속사, 전환의 기술

셋의 품질은 전환에서 드러난다. 힙합에서 하우스로 넘어갈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단지 BPM만 올리는 것이다. 체감은 리듬의 강조점에서 생긴다. 스윙이 살아 있는 힙합에서 스테디한 하우스로 갈 때는 퍼커션의 스윙을 매개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어, 100 BPM 힙합의 클럽 위치를 살짝 앞당긴 리믹스 뒤에 124 BPM의 셔플 하우스를 연결하면 몸의 스윙이 유지된다. 반대로 라틴에서 EDM으로 갈 때는 톤으로 연결한다. 라틴 스트링의 코드를 다음 곡의 패드가 이어받으면, 관객은 전환을 서사로 느낀다.

키믹싱은 과장이 쉬운 영역이다. 모든 곡을 완벽한 키로 맞추려 애쓰다 보면 현장의 즉시성을 잃는다. 경험상, 강남 메인룸에서는 반음 상행 전환이 15분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라운지에서는 같은 키에 머물러도 지루하지 않다. 힙합 바는 키보다 후렴의 구호가 우선이다.

알고리즘과 큐레이션, 둘 다 이긴다

요즘은 스트리밍 플랫폼의 추천 플레이리스트가 출발점이 된다. 하지만 강남의 밤은 알고리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데이터는 안전한 경로를 제공하지만, 군중은 그날의 이유 없는 합의의를 만든다. 비가 오면 아프로비츠가 잘 팔린다는 통계가 있지만, 그 비가 언제 내리는지, 얼마나 추운지, 내내 내렸는지가 변수다. 결국 라이트맨, 바텐더, 테이블 호스트가 전하는 미세한 신호들이 플레이리스트를 미세 조정한다. 유흥은 팀 스포츠다. 강남유흥의 실전에서는 음악이 서비스와 동일한 언어를 써야 한다.

다만, 검색과 노출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강남업소라는 넓은 바구니로 사람들이 찾는 동안, 특정 골목의 작은 바도 같은 검색어로 만난다. 찜오 같은 속어가 붙어 다닐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손님이 입장한 이후의 체험이다. 음악은 유입의 질을 바꾸지는 않지만, 재방문의 확률을 키운다.

현장 운영을 위한 최소 체크리스트

- 시간대별 볼륨 프리셋과 리미터 세팅을 미리 저장한다.
- 피크 타임에는 인지도 높은 후렴을 10분 간격으로 한 번씩 배치한다.
- MC, 테이블 입장, 보틀 쇼 타이밍을 드롭 전 2 - 4마디에 맞춘다.
- 서브우퍼의 60 - 90 Hz를 점검하고 125 Hz 공진을 억제한다.
- 매일 첫 곡은 전날 마지막 곡의 키와 감정선을 50퍼센트 이상 이어받는다.

실패와 리커버리, 실전의 디테일

아무리 준비해도 밤은 예측을 배반한다. 힙합 바에서 갑자기 여성 그룹의 단체 입장이 들어오면 템포를 4 - 6 BPM 올린다. 남성 위주의 군중이 피로해지면 RnB를 섞어 심표를 만든다. 메가클럽에서 음향 트러블이 생기면 DJ는 보컬 중심 곡으로 신호를 유지하고, 운영팀은 조명을 상승시켜 소음을 시각적 이벤트로 덮는다. 하우스 룸의 갑작스

런 이탈은 베이스 라인의 난조로움이 원인일 때가 많다. 퍼커션을 추가하거나, 예상 외의 클래식 보컬 샘플로 감각을 깨운다.

그리고 기록한다. 무엇이 먹혔는지, 무엇이 불발이었는지, 시간과 상황, 군중의 구성을 로그로 남긴다. 4주만 누적해도 다음 달의 해답이 보인다. 압축하면 이렇다. 강남의 음악은 변덕이 아니라 패턴을 가진다. 패턴은 데이터에서, 해석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 짧은 대답

라운지에서 K-pop 리믹스는 얼마나 자주 틀어야 하나. 한 시간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그 이상은 집중을 흐린다.

메가클럽에서 트랩은 몇 곡까지 연속으로 가능한가. 2곡이 안전선이다. 셋의 플레저 포인트를 하나만 쓰면 피로가 빠르게 온다.

아프로비츠가 한국어 군중에게도 먹히는가. 예, 후렴의 모음이 명확하고 콜 앤드 리스폰스가 쉬운 곡은 반응이 좋다.

루프탑의 바람이 심한 날, 무엇을 조정해야 하나. 2 kHz 이상을 1 - 2 dB 올리고, 킥의 어택을 부드럽게, 보컬의 컴프를 살짝 더 건다.

힙합 바에서 외국인 비율이 높아지면. 영어권 후렴 두 곡으로 브리지, 바로 한국어 후렴으로 귀환하면 이탈이 적다.

마지막 팁, 사람의 속도에 음악을 맞추라

음악은 공간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한다. 강남의 밤은 빠르다. 하지만 모두가 빠르게만 살고 싶은 건 아니다. 어떤 테이블은 대화하려고 들어오고, 어떤 테이블은 오늘을 지우려고 들어온다. 어떤 군중은 카메라를 위해 춤추고, 어떤 군중은 자신을 위해 흔든다. 그 다른 속도들을 하나의 밤으로 엮는 게 큐레이션의 일이다. 좋은 플레이리스트란, 공간과 사람의 속도가 만나는 교차점을 빠르게 찾아내고, 과감하게 돌아갈 줄 아는 지도다. 강남유홍의 변주 속에서도, 힙합과 하우스, 라틴과 아프로비츠는 그 지도를 그릴 가장 강력한 선들이다. 음악이 정확하면, 밤은 스스로 움직인다.



지금 찜오의 시스템은